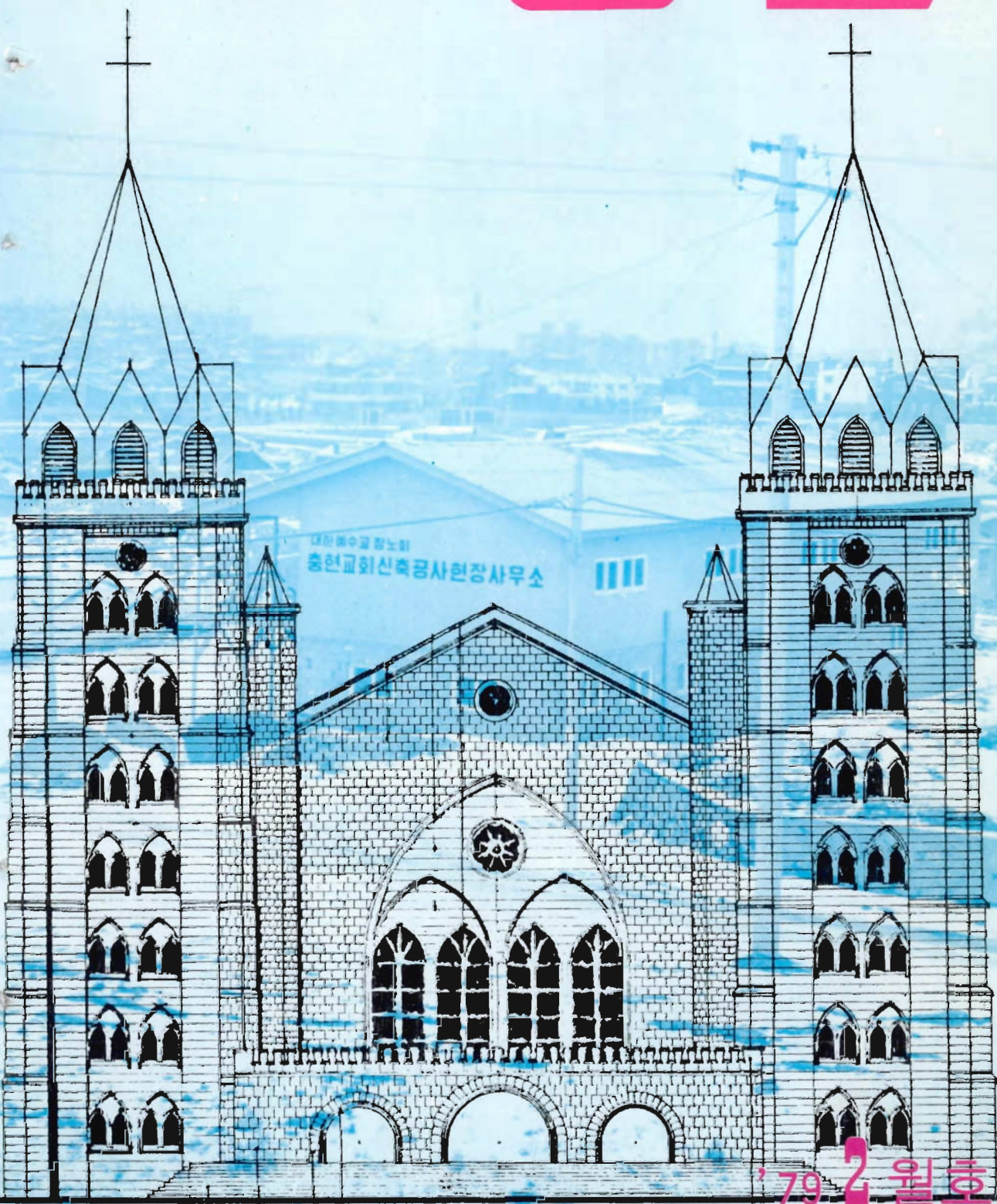


월간 중현



대한불교청교회
중현교회신축공사현장사무소

'79 2 월호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 1:8의 말씀이다. 대상 22:6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 짓기를 몹시 소원하였으나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 하시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대상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성전을 지어 바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솔로몬 성전이 그 규모에 있어 얼마나 크고 웅장하였으며 아름다웠던가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다.

우리교회가 1979년은 새성전 건축의 해로 정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970년에 새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강남구 논현동에 마련케 하여 주시었다. 그 후 10년동안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작년 5월 25일 논현동 현장에서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리게 하시었다. 그리고 그 후 1년 가까이 온 성도들로 하여금 새성전 건축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앞에 აღ드려 기도 드리고 매일 매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었다.

- 완벽한 설계를 주시옵소서
-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좋은 재료들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 이 모든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한 재정을 주시옵소서
- 훌륭한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 매를 따라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헌금하는 모든 자에게 영육의 부자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와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걸어놓고 1년동안 기도하여 온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이제 금년에는 새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본당 건물의 골조공사와 교육관 건물의 골조공사를 금년내로 완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다. 출 35장과 3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앞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출 35:20 이하에 보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앞에서 물려 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을 가져다 바쳤더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가슴핀 혹은 어떤이는 금가락지 혹은 목걸이 그밖의 귀한 예물들을 수없이 가져다 바치었다고 하였다. 어떤 족장은 호마노와 예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까지 가져다 바쳤다고 하였다. 여하간 출 35:29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녀마다 여호와앞에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다고 했다. 출 36:5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 오므로 성전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다.

우리 중현교회 새성전 짓는 역사에도 이와같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앞에 성전을 짓고 복을 받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어떤 형동한이 그들 앞에 없었으리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7년이나 걸려서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3년 6개월만에 완성하였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은 2년 이내에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기를 소원하여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서 속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앞에 바치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 간절 한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제62호

월간 충현

* 차 례 *

권 두 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주 간 · 2
이달의말씀	성도의 생활은	김창인 · 4
지상 특강	현대 사회를 향한 교회지도자의 사명	손봉호 · 6

특 집 1979년의 구역권찰회 · 새성전 계획

전 구역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해로	편집실 · 11
설계로 보는 새성전의 이모저모	편집실 · 14
후손에게 복의 전당을	편집실 · 18

편집실칼럼	하나님의 사랑아!	고제원 · 20
찬송가감상	나의 사랑하는 책	김중석 · 20
책 소 개	교사와 학생	이준교 · 21
도서 정보	1월중 구입도서	편집실 · 21
기독교윤리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김하진 · 22
주간의만나	시편 55 · 56 편	김창인 · 25
이달에 만난 사람	새성전 건축설계의 산파역	편집실 · 26
해외선교소식	선교지에서 온 소식들	해외복음선교회 · 27
구역소식	오늘의 우리의 기도	편집실 · 28
	새교우 · 별세 · 결혼 명단	
주 교 소 식		30
교 회 소 식		32
편 집 후 기		34
이렇게 답한다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지	백성룡 · 35
실로암 못가에서	새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36

표지설명 : 눈 덮인 새성전 건축현장, 공사현장 사무소앞 정지해 놓은 6천평의 대지 위에 지재가 쌓여 있다. 그 위에 우리의 소원인 새성전의 한 모습을 담아 본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사관 (가관) 1월

교회지도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을 교인에게 양성시켜야 하고 이 책임의식이 없을 때는 교회가 요즈음 사회에 이바지 할 수가 없게 된다. 교인들에게 절대로 우민 정책을 쓰지 말고 비판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양시켜야 하며 비판력을 넣어 주어야 한다.

람들은 자기 집안"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어릴 때 부터 책임감이 모자라고 무력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며 설명을 했다.

출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큰 회사에 들어 가니까 1년동안 사장은 커녕 이사의 얼굴도 한번 보기 어렵고 큰 회사내의 조그마한 공간이 자기가 알 수 있는 전부인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인 것이다. 그러니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슨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사회가 복잡해 지니 분업이 생기는데 한가지만 잘 안다는 말은 전체를 모른다는 말이다.

현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요구해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비밀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바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니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자기의 우물속에서 간헐 일하니까 책임 질 생각도 안하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서 전체에 대해 알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대가 이 책임을 더 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책임감이 없어지는 사회에 살면서 책임감이 없어도 사회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는 인간의 책임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옛날에는 한사람이 아무리 못된 것을 하였다 해도 자기 이웃친척 그 이상은 괴롭게 하지 못했으나 요즈음은 꺾뻑 쏘면 전 도시를 황폐케 할 수가 있다. 가짜유메로 이리저리 폭발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현대이다. 또한 옛날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다섯명 정도만 찔러 죽이면 기진맥진하여 더 못죽이는데 요즈음은 기관총으로 수백명을 죽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한 때

한 사람의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때이다. 더 나아가 열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훨씬 더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것이 불가피한 산업시대의 상황이다. 그러니 현대사회가 유지되려면 철두철미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보통 정도의 단순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책임을 져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의 책임 지도자라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과거의 어느 지도자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전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철두철미한 지도자가 필요해

교회 지도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의식을 교인들에게 키워줘야 한

한 사람의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때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훨씬 더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불가피한 산업시대의 상황이다. 그러니 현대사회가 유지되려면 철두철미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이 신지를 알아 섭기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만을 버리고,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여 기회 놓치지 말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 지혜를 얻기 위하여 교훈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 교훈을 받을 때에 얻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울 때에 지혜의 문이 열리며 지혜의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전체를 다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한쪽 모퉁이를 아는 지식이며 그것도 똑똑히 모르고 뒤집어 얹어서 거꾸로 알기 쉬운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또 인간의 지식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짧습니다. 굉장한 학설이 나와도 그 다음에 다른 학설이 나오면 그 학설은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지식을 배워도 지혜가 어느 만큼은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지혜가 완전히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변할지언정 틀끝만치 변함 없으신 완전하신 말씀이며,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며,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고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마음에 심으란 말입니다. 마음에 심어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묵상하면서 내 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내 입에 말이 나오고 내 몸에 행동이 움직여질 때에 범사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으면 심는 대로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은 지혜를 가진 실력자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십니다.

3.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란 말은 지위가 높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섬기란 말입니다. 말로만 섬기지 말고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란 말이며 둘째는 무서워 떨며 섬기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공경하면서 섬기고, 잘 못 섬기면 형벌 받을 것이 무서워 조심해서 섬기는데, 덕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흠모하면서 섬기고, 사랑이 풍성하시니 감사하면서 섬기고, 행한대로 갚아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니 떨고 조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막워 하시는 것을 정리합니다. 즉 죄 회개하고 우상 정리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영육에 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외식없이 원망없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서 섬긴단 말입니다.

4. 예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화목합니다. 본문에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크게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과 입맞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옥 가게 된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내 몸보다, 내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먼저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논한다는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로 의논하면서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의논은 그의 말씀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인데 의논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할 태세를 가지고 의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손 못대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것을 꿈에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 인것을 기억하여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심어 묵상하고 순종하며, 말과 행동에 실천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어 섬길 줄 알아, 예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 봅시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신향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66 kHz

매주일 저녁 7 시 15 분부터

현대사회를 향한 교회 지도자의 사명

손 봉 호 박사

〈외대 교수〉

현대를 소위 산업사회라고 이야기들 한다. 그래서 현대문명을 산업 사회의 문명이라고 한다. 또 산업사회 문화를 대중문화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모든 사회학자, 철학자, 정치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곧 소외의 문제이다.

소외(疎外)라는 말은 본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이 말을 처음 만들어 쓸 때 성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비어 즉 하나님께서 몸을 비어 종의 형상이 되었다고 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소외(疎外)라고 했다.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존재가 된다는 것, 타자(他者)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본래는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변하여 적대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

오늘날 사람이 만든 문명이 사람에게 적대관계를 이루게 됐다. 옛날에는 사람을 위협했던 것이 자연이었다. 번개가 치면 겁을 내고 홍수가 나면 겁을 내고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처럼 옛날에는 자연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명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사람이 만든 문명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산물이 다 그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날 소외란 말을 사용한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문명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대 문명의 특색이다. 그래서 현대인을 소외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외된 인간을 사회학자들은 대중(mass)이란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즘 대중사회니 대중문화니 하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대중, 곧 소외된 인간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부자유스러운 사람, 곧 자기의 자유를 상실한 사람, 둘째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 자기가 살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에 대해서 꼼짝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세째는 무척 나태한 사람, 네째는 무책임한 사람, 다섯째 상품화 된 사람, 혹은 향락에 젖어 있는 사람, 여섯째로 자기가 가장 유식한 척 하는 사람 즉 가장 무식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면에 대중에 반대되는 소위 소외된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elite)라고 한다. (이 엘리트란 말에 대한 우리말에 적당한 번역이 없지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엘리트의 수는 줄어들고 대중의 수는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점점 심화되는 대중화현상

지금 우리 사회도 갈수록 대중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 몇년전과 비교해 보아도 그 심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처럼 사회에 대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엘리트를 요구한다. 과거 어느때 보아도 더욱 요구가 되는데 만약 우



이 대중, 곧 소외된 인간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자기의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며 세째는 나태한 사람, 네째는 무책임한 사람, 다섯째는 상품화 된 사람, 여섯째는 자기화 된 사람, 여섯째는 자기가 가장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향해 취해야 할 태도는 책임감이다. 책임은 능력이 없을 때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리 사회가 전부 대중이라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사회는 훌륭한 지도자를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회의 유혹, 대중사회의 여러가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드문 정도가 아니고 극히 소수인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중과 엘리트와 교회 지도자와 크리스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대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기엔 큰 착오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중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1주일에 6일은 세상에 속했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 설교를 30~40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1주일을 지낼 수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교회에도 대중화 현상이

교회도 오늘날 대중화 현상이 들어 왔다. 그러기에 교회의 지도자로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됐다.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교회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사회는 가만히 놔 두고 몇사람만 자주 지도한다고 해서 그 몇사람이 지도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밖에 나가면 다시 더러워지므로 암만해도 끝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재자이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이유 뿐만아니라 교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사회를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올바르게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소외현상 극복하려면 책임감 있어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향해 앞장 서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책임감이다. 책임은 능력이 없을 때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질 수 없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마을에 대해 흔히 잘 알면 그 마을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어떤 일에 자신감이 있을 때 책임감이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알 수도 없고 그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게 된다.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출신조사를 하였던지 도시 출신은 1~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 출신이라고 타임(Time)지에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누비면서 장난치며 골목대장을 했기에 마을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전체를 알고 자신이 생기니 자연 책임지는 버릇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성장을 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자란 사

현대인들이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질 수 없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교회지도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을 교인에게 양성시켜야 하고 이 책임의식이 없을 때는 교회가 요즈음 사회에 이바지 할 수가 없게 된다. 교인들에게 절대로 우민 정책을 쓰지 말고 비판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양시켜야 하며 비판력을 넣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어릴 때 부터 책임감이 모자라고 무력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정장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며 설명을 했다.

출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큰 회사에 들어 가니까 1년동안 사장은 커녕 이사의 얼굴도 한번 보기 어렵고 큰 회사내의 조그마한 공간이 자기가 알 수 있는 전부인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인 것이다. 그러니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슨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사회가 복잡해 지니 분업이 생기는데 한가지만 잘 안다는 말은 전체를 모른다는 말이다.

현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요구해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비밀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바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니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자기의 우물속에서 갇혀 일하니까 책임 질 생각도 안하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서 전체에 대해 알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대가 이 책임을 더 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책임감이 없어지는 사회에 살면서 책임감이 없어도 사회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는 인간의 책임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옛날에는 한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였다 해도 자기 이웃친척 그 이상은 괴롭게 하지 못했으나 요즈음은 깜빡 졸면 전 도시를 황폐케 할 수가 있다. 가까운 예로 이리역 폭발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현대이다. 또한 옛날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다섯명 정도만 찔러 죽이면 기진맥진하여 더 못죽이는데 요즈음은 기관총으로 수백명을 죽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한 때

한 사람의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때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책임을 져야하는 한계가 훨씬 더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것이 불가피한 산업시대의 상황이다. 그러니 현대사회가 유지되려면 철두철미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보통 정도의 단순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의 책임 지도자라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과거의 어느 지도자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전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철두철미한 지도자가 필요해

교회 지도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의식을 교인들에게 키워줘야 한

한 사람의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때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훨씬 더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불가피한 산업시대의 상황이다. 그러니 현대사회가 유지되려면 철두철미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대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큰 착오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교회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사회는 가만히 놔두고 몇 사람만 자주 지도한다고 그 몇 사람이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밖에 나가면 다시 더러워지므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책임의식이 없을 때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행동에 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즉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치 않고 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인들에게 절대로 우민정책을 쓰지 말고 비판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양시켜야 하며 비판력을 넣어 주어야 한다.

두번째로 현대인의 특징은 향락 위주의 생활이다.

현대인은 향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초월가치를 다 상실했기 때문이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가치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선한가에 대해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바로 현대의 신앙의 원수는 이성이 아니고 감각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한다.

정신적 가치가 상실된 현대

과학도 실험하는 것만 믿지 이론적인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식적인 가치 즉 정직해라, 성실해라 해 봐야 별로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기분 좋은 것은 잡히는 것이다. 즉 돈은 자기가 느껴지고 계산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기에 기분이 좋다고 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또한 현대만큼 육체에 큰 관심을 둔 적은 과거에도 없었다.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은 어느때보다 성(性)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사이에는 그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저 손을 잡고 입을 맞추어야 사랑이라고 한다. 즉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한다.

또 현대인 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진 때는 없고 보약을 많이 사 먹는 시대는 없다. 옛날에는 밥을 좀 굶으면서 책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굶을 뿐만 아니라 책을 보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본다. 책은 마음속에 영상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바로 눈에 보이기에 책 읽기를 싫어한다.

상상력은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못찍어

상상력보다 사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니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상상력은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찍을 수 없는 보다 높고 풍부한 것이다. 텔레비전은 상상력을 빈곤시키고 나태하게 한다. 스포츠 중계를 할 때는 거리가 조용해진다. 이점에서 문제점은 바로 고등가치는 우리 눈 앞에 안 보이고 저등한 가치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고등가치-정직, 성실-는 눈 앞에 아득하고 희미하고 확실히 눈 앞에 떠오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하니까 고등가치는 희미해지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회생을 당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철학적인 가치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회인들은 못 보고 있다. 다만 대중의 상태를 초월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금욕할 수 없으면 지도자를 포기하여야 한다. 현대인은 물질을 추구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에 대하여 경시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자기들과 같이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무시하게 된다.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가치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회인들은 못 보고 있다. 다만 대중의 상태를 초월한 사람만이 그것을 - 정신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 -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이러한 정신과 상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현대의 지도자로서 큰 문제가 된다. 말하자면 나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텔레비전 사회에 사는 사람은 나무 밖에 보질 못한다.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숲을 내려다 보아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현대의 지도자들은 나무를 알아서는 안된다. 숲을 알고 난 후에 나무를 알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력이다. 극기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마음 내키는대로 한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극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세번째로 현대인은 물질에 관심이 있다.

앞서 말한 향락위주의 사고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물질에 관심이 많다. 현대문명은 물질문명이기에 현대인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 어느때 보다도 현대는 물질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처럼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시대는 없다. 이유는 물질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본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고등가치가 상실되니까 저등가치만 남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치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가치가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부자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그것은 동물의 목적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면 다닐 필요가 없다. 고등가치는 수련과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확립되며 그럴 때 고등가치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에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 있었기에 돈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 양반과 상놈에서 상놈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양반이 될 수 없었다. 돈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국회의원도 교수도 돈이 없으면 안된다.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모든 가치를 돈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할텐데 그때 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지도자는 금욕할 수 없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현대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금욕할 수 없으면 지도자를 포기하여야 한다. 특별히 물질의 욕망, 명예의 욕망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물질을 추구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에 대하여 경시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자기들과 같이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무시하게 된다.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기에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물질에 금욕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물질에 금욕할 줄 아는 지도자상이다.

금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고는 연초 교역자수련회의 강의내용을 월간충현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할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대인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 어느때 보다도 현대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처럼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

전 구역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해로

구역행정업무 간소화도



(구역권찰회장 김재창 목사)

금년들어 구역권찰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10여년이상 구역권찰회 회장을 맡아 온 백성룡목사가 사임하고 김재창목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 점과 구역행정의 간소화, 심방담당자의 보강, 구역예배의 일원화등 보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79년에 변동된 사항

1. 지역담당을 1년으로

지날때까지 각 지역에 담당목사와 여전도사 각 1인이 6개월씩 담당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한 팀을 증원하고 담당기간도 1년씩으로 하도록 했다.

(지구담당 교역자)

지구별	원 팀		부 팀	
	목사	여전도사	장도사·전도사	여전도사
제1 지구	백성룡목사 이성봉목사	최순복전도사	이승근장도사	김순옥전도사
제2 지구	김종택목사	구명선전도사	윤형천장도사	김경성전도사
제3 지구	정상우목사	강봉선전도사	이준교장도사	정연희전도사
제4 지구	김하진목사	이두란전도사	김중석장도사	김순애전도사
제5 지구	김재창목사	김용선전도사	김영희전도사 김석원전도사	김은숙전도사

이처럼 두팀이 지역을 반분하여 심방하되 원팀에서 한명, 부팀에서 한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주 평균 2,3일만 심방토록 해 과중한 심방업무를 서로 나누어 지게 되었다.

- ◇... 1955년 16개 구역으로 구역권찰회가 조직된 이래 ...◇
- ◇... 우리교회의 신경계통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우들의 ...◇
- ◇... 실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서 보고·처리할 뿐만 아 ...◇
- ◇... 나라 성도간의 교제의 매개체가 되어 온 구역권찰회 ...◇
- ◇... 가 1979년에는 169개 구역으로 확대되어 교회와 구 ...◇
- ◇... 역, 각 교우간의 긴밀한 매개체로서 그 어느 누구도 ...◇
- ◇... 모르는 어려운 일을 또 감당하게 됐다. ...◇
- ◇... 구역권찰회의 1979년도의 계획·운영 등의 상황을 ...◇
- ◇... 구역권찰회장 김재창목사의 도움 말씀을 얻어 살펴 ...◇
- ◇... 본다. ...◇

2. 교인의 신앙상담실 운영

이처럼 심방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부목사들이 일주 2,3일만 심방하게 됨에 따라 교인들의 신앙상담을 맡게 되었고 유교 심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교인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에 응하게 된다.

3. 구역행정 업무의 간소화

그동안에 많았던 비치서류 및 보고서를 일체 생략하고 구역에서는 구역카드와 구역보고서만을 구비하고 월1회 구역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구역장의 구역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4. 구역권찰회 사무실 운영

구역장의 행정업무가 줄어 들에 따라 구역권찰회의 업무가 늘어 났고 또한 구역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권찰회 전용 사무실을 두고 전임 직원으로 구역권찰 행정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구역권찰회 사무실을 동관1층(현재 당회장실, 구 선교회사무실)에 정하였다.

또한 구역권찰회 실무 업무를 전임직원 외에도 여전도사들이 요일별로 상주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함으로 구역권찰행정을 정착화 시킬 계획이다. 업무분담 및 업무담당 요일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옥선생(본 사무실에서)

- ① 각종 대장 보관 및 정리
- ② 등록, 이동, 제적등의 통계
- ③ 타자

2) 김연이전도사(월, 화)

- ① 구역보고서 종합 처리
- ② 구역심방자 출석 통계

3) 김은숙전도사(수, 목)

- ① 구역별 심방 카아드 정리

4) 김경성전도사(금, 토)

- ① 교적부 정리
- ② 신급별 카아드 정리
- ③ 봉직 카아드 정리

4. 구역권찰회 조직 분담

신년도부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업무분담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

- 인사분과 : 정삼우 · 이두란 · 김용선
- 집회분과 : 김종택 · 최순복 · 김은숙
- 교육분과 : 이성봉 · 구명신 · 김경성
- 통계분과 : 김하진 · 강봉선 · 김연이

5. 구역예배를 일원화

금년에는 169개 전 구역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예배와 공부를 분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예배시간과 공부를 합하여 한다. 구역장이 공부의 강사가 되어서 모든 구역예배를 주관한다.

6. 구역원 현황

지구별	구역수	장로	권사	구역장	권찰	계
제 1 지구	36		37	36	111	184
제 2 지구	31		36	31	95	162
제 3 지구	35		43	35	113	191
제 4 지구	32		36	32	96	164
제 5 지구	35		44	35	85	164
계	169	41	196	169	500	906

지난해의 150개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너무 비대해 진 구역을 분할하여 19개 구역이 증가되어 금년에는 총 169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구역운영 지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로 매주일 금요일 가정을 심방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구역에 관한 모든 일이 구역담당 권사와 권찰을 중심으로 한 이 심방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심방에서 교인들의 모든 이 동사항, 유고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1 지구 ◇



백성룡 목사



이성봉 목사

◇ 제 5 지구 ◇



최순복 전도사



김용선 전도사

◇ 제 2 지구 ◇



김종택 목사



구명신 전도사

◇ 제 3 지구 ◇



정삼우 목사



강봉선 전도사

◇ 제 4 지구 ◇



김하진 목사



이두란 전도사

구역권찰회 전용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하고 있다. ▶



각 구역은 매주 금요일마다 권사와 권찰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심방하여야 하며 유고·가정(이사·결혼·출산·사망·환자·이민·화재·도난·입대·교통사고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몇가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자.

1. 구역원 파악

등록 혹은 이동에 따른 구역원 증감에 관한 파악은 해 구역원 주소지의 구역에서만 파악할 것이며 점포나 사무실 기타 근무처의 가까운 구역에서 필요에 따라 심방을 요할 수 있으나 통계업무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위치상 구역 소재가 애매하거나 이웃 구역에서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지구 담당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2. 구역 파견 시무에 관하여

주소지 구역을 떠나 다른 구역에 파견 시무하는 구역장 및 권사나 권찰들은 업무상 시무 구역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헌납 관계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시무 구역에나 주소지 구역에 임의로 결정할 것이다.

3. 구역협력기구 운영

구역간 협조 혹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몇개의 이웃 구역끼리 합하여 지구별로 반을 편성하여 경조간 특히 초상의 경우 구역원 동원은 가급적 해당 구역원은 전원이 동원되도록 할 것이며 기타 구역에서는 최소한 권찰들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979년도 업무개요 및 계획

1979년 1년동안 구역권찰회에서 시행해야 할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역권찰회원(교역자·구역담당장로·권사·구역장·권찰)은 한번쯤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특별권찰회 : 1월23일 오후 7시
2. 구역별권찰회 : 2월 중순까지 담당장로가 소집, 주로 구역협력 기구로 모이게 된다.
3. 구역별특별기도회 : 구역별 권찰회 후에 2월 말까지 각 구역장 주관으로

4. 구역카드 및 각종서류 완비 : 각 구역장은 해당구역 카드를 교회카드와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5. 노인심방협력 : 1~2월 중 노년부 담당교역자가 전담 실시하게 되는데 각 구역에서는 필요시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6. 월말보고 :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현재로 작성한다.

7. 매주 구역심방 : 구역담당 권사와 권찰들이 매주 금요일에 심방

8. 구역예배 :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 가정에 모여 드린다. (3월부터 시작)

9. 대심방 : 춘계는 3~6월까지 추계는 9~12월까지

10. 새신자 육성 : 새신자가 등록되면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출석을 독려하고 안내를 친절히 한다.

11. 각급 신앙문답자 파악 : 성례가 있는 4월과 10월을 전후로 하여 3월과 9월에 각급 신앙문답자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12. 신급별 교인 일제조사 : 성례가 끝나고 4월과 9월 중에 신급별 교인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13. 경로회 협조 : 5월중에 실시하는 경로회의 참석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14. 여름행사 협조 : 7월부터 시작되는 각부 주일학교와 각 지회의 여름행사를 위해 각 구역에서 봉사 모금을 한다.

15. 구제 : 12월 둘째 주일까지 구제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구제를 위한 모금을 한다.

16. 이웃 구역 돕기 : 협력구역간에는 물론 타 구역까지도 구역장들의 협의로 경조간 협력한다.

17. 신속한 보고 : 모든 보고는 신속히 담당 교역자에게 하고 사무적인 보고는 월말에 서류로 보고 한다.

설계로 보는 새성전의 이모 저모

○... 작년 「월간중현」 2월 호에서 다루었던 새성전 대지의 현황중 물리적 분석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기능 분석과 기본계획에 대해 여러 교우님들께 소개합니다.

(편집자) ...○

2. 기능적 분석

가. 동선및 토지이용

먼저 주어진 대지 내에서 어떻게 하면 건물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동선관계, 일조권(방위) 문제, 유통관계, 건물과 건물사이에 유대 관계를 충분히 이용하여 토지 이용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교회 배치계획은 첫째로 동선문제를 중요시 하여 다루었으며 예배, 교육, 선교의 3개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주안점

을 두었다.

예배공간인 본당은 한번의 예배시 5,000명 이상의 성인 성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대기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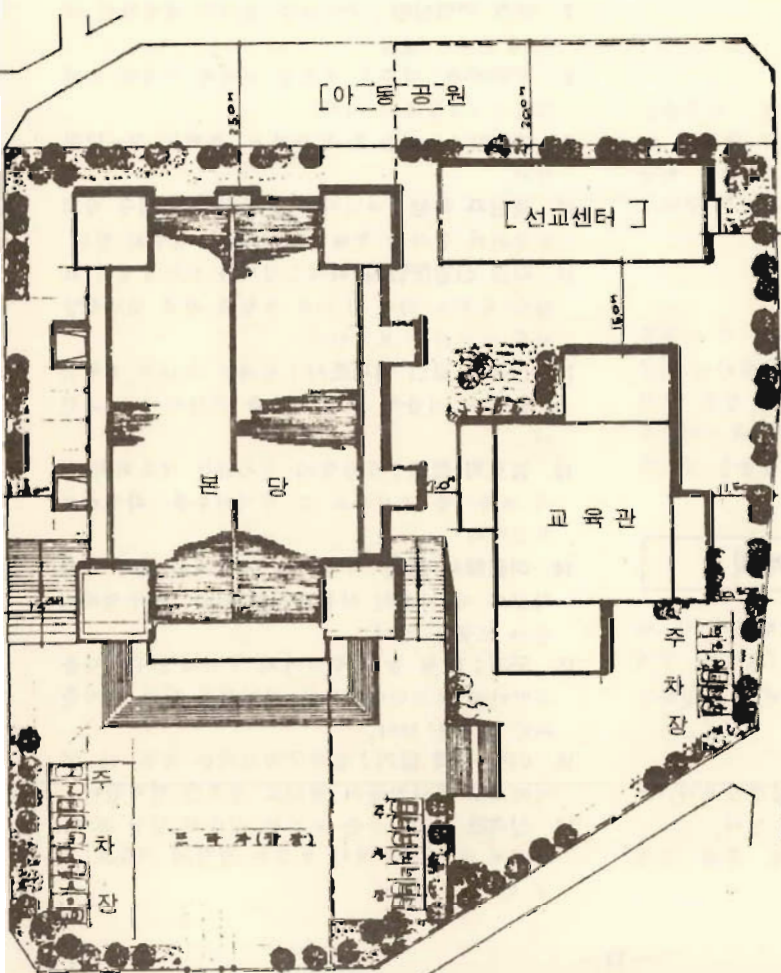
첫째로 예배 후 직접 외부로 빠지는 본당 앞 광장으로부터 정문에 이어지는 선과 둘째 지하차고 쪽으로 가서 승용차나 기타 차량으로 빠져 나가고 도로에 의한 유통과정, 세째로 본당과 교육관으로 상호연결 되는선, 네째로 선교 센터를 관리공간으로 볼 때 선

교센터에서 본당, 선교센터에서 교육관까지 연결되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선, 다섯째 교육관과 정문밖의 외부로 통하여 이어지는 선 등등의 유통과정이 서로 원 활해야 하며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3요소의 공간과 주차 공간까지의 각각 용도의 독립성을 갖는 특색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개개 건물의 평면구성을 이에 근거를 두고 계획에 임했던 것이다.

나. 주변 기능

주변은 주택가이면서 주변의 표고차가 동측 주변 도로와 남서측 교차지점이 되는 도로에서 12m의 고저차가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했고 남서측 본당 배치할 부분과 동측의 표고차로 자연적인 예배공간에서 교육공간의 대지를 3.6m(12차) 내려 단지조성을 안하면 안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공간의 광장은 1단지가 높으므로 대예배실을 2층에 두어서 예배공간의 광장에서 직접 예배실로 이어지는 편리한 구성이 되면서 교육공간과는 독립성을 유지했다.

예배공간 앞 광장에서 교육공간에 이어지는 선은 약 10m폭의 계단으로 교육관 광장으로 이어지며 그 좌측에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경사로(램프)(폭 7m~경사로 14%) 본당 1층과 교육및 선교센터까지 이어지게 되며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출입은 동남쪽 대지 끝부분과 동북의 대지 끝부분에 지하 1층에 연결 출입 통로가 이어지고 지하 2층에는 동쪽길로 연결되는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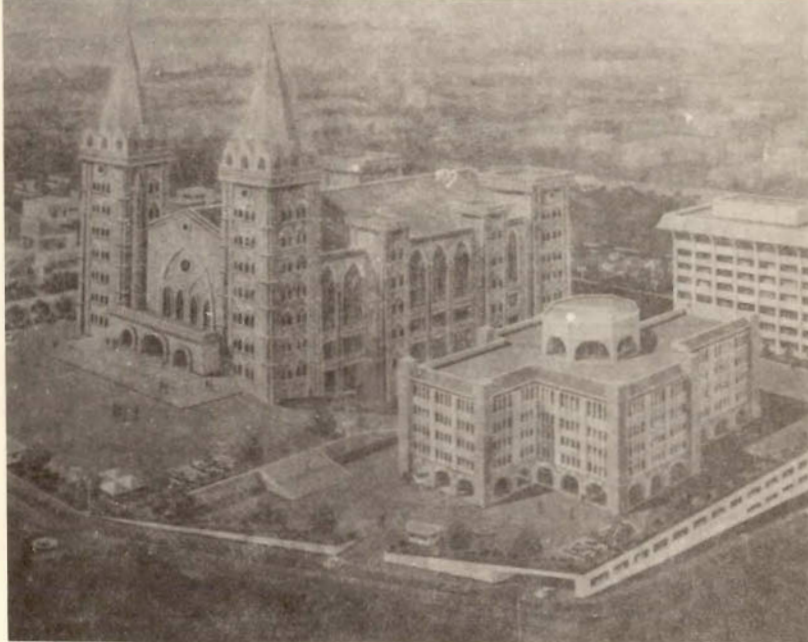
입 통로를 둘 수 있다. 대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합세하여 새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들은 믿지않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이유는 높고 큰 교회 건물이 들어서면 주택이 가린다는 등 교회가 들어서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교회 짓는 것을 반대해야 겠다는 등의 말들이 많은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결코 하나님의 선한사업이 인간들이 왈가왈부해서 저지된다든가 중단된다는가 생각해서는 큰 오산일 것이다.

주변기능에서 대지 사면의 도로가 폭 6m의 도로로 면해 있으므로 도로의 협소한 감을 느껴며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2m씩을 후퇴하여 8m의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계획상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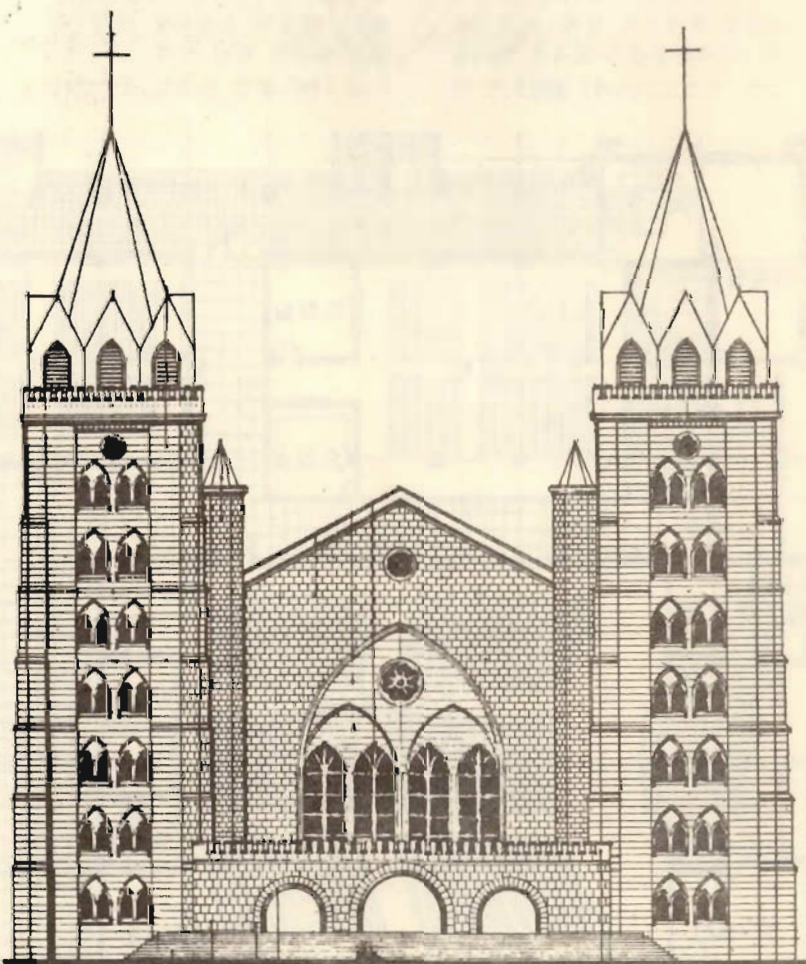
앞에서 말씀했듯이 주변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우리 새성전과 주택가와의 유대는 서로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어서 교통관계나 대지내의 유통관계나, 소음관계도 서로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성전의 외관은 초현대식이나 개방형이 아니고 19세기 이전의 고전식으로 주택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했으며 주변이 △형의 주택지붕에 교회당은 뿔모스의 □형 지붕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기 때문에 창문의 모양이라든가 지붕의 모양을 고딕식인 첨두아치(보울트) 그외면류관인 성곽형태를 모방했으며 출입을 하는 광장쪽의 계구부는 반원의 아치로 조화를 이루려 하고 있으며 측면의 모양은 열주로 떠받힌 개방형과 폐쇄형을 어울려 노출부도(발코니식)를 두어서 조화를 이루었으며 많은 인파의 유통을 위해서 양측 각 2개씩의 교회당 문체에 비상계단을 폐쇄



▲ 새성전 조감도

▼ 새성전 입면도



형으로 배치하여 건물전체의 침착한 느낌, 장엄한 느낌의 안정감을 이루어 놓았다.

일례를 들어서 주후 1200 년경에 구라과 제국들의 주거의 계획이나 행정구획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를 중심에 두고 특하 교회를 중심에 놓고 주택가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기능분석 안에는 이용밀도라든가 이용형태를 연구분석하여 계획하지만 이만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새성전 건축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기본계획

1. 본 당

본당 1 층은 다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하였으므로 그 사용동선은 교육관 센터를 같은 선으로(level) 놓았으며 안

쪽에는 1,000~1,200 석의 소집회 음악발표회 영화및 환등 기타 회의를 목적으로 320명의 규모로 설계하였고 그 내부는 완전방음, TV 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기타 부속실에는 외국인 초청훈련이나 강의 또는 국제회의가 있을 때를 위하여 4~5 개 국어로 동시 통역할 수 있게 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성가연습실을 400명이상이 연습할 수 있는 계단식 좌석으로 설계하였고, TV 녹화, 스튜디오형(STYLE)으로 완전방음 장치를 하였고 이 연습실은 본당에서 대예배시에, 성가연습후 성가대석으로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별도 전용계단으로 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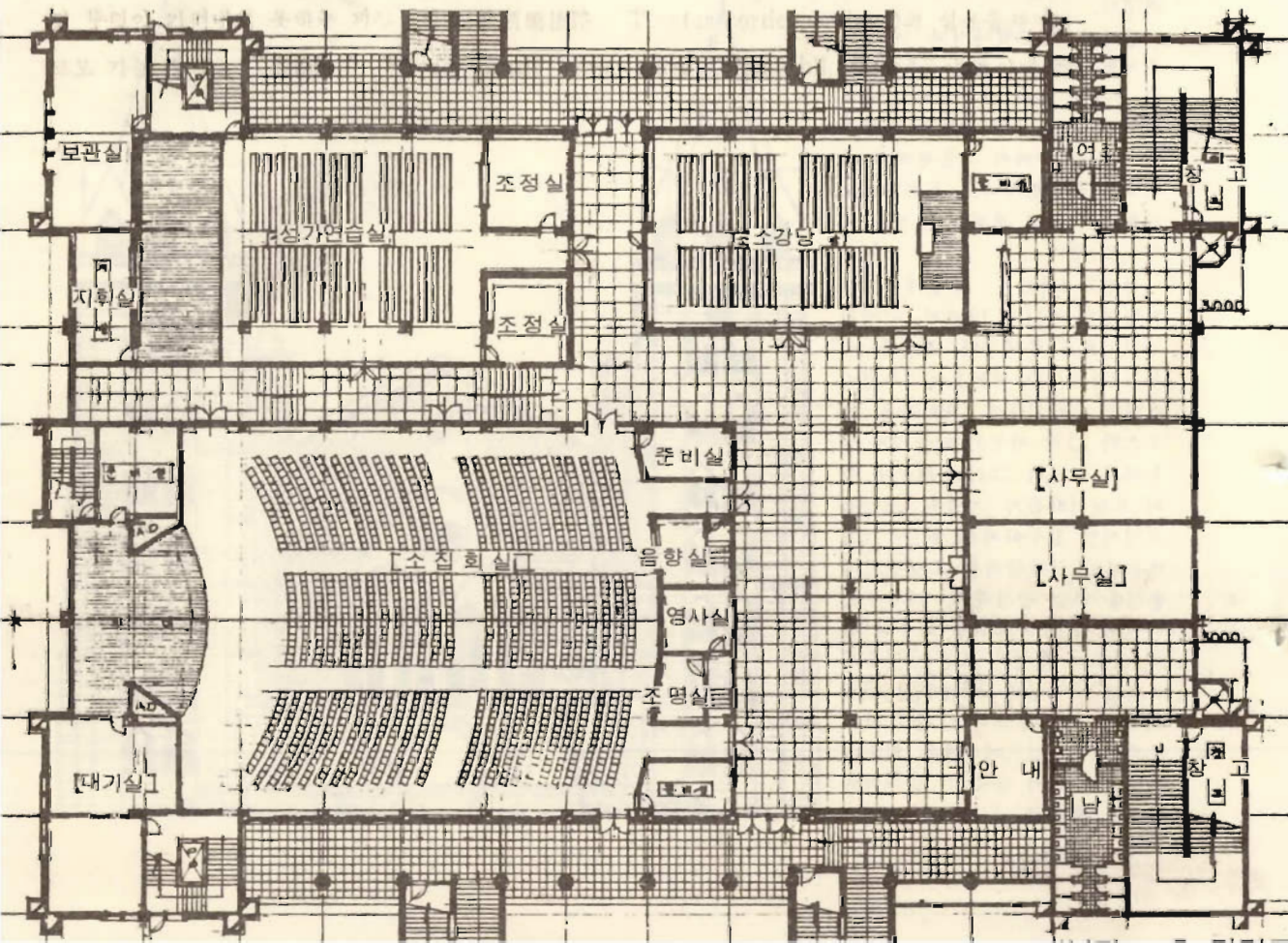
그리고 약 400석 정도의(약 90평) 다목적 소집회실 즉 4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400인 정도의 소집회를 가질 수 있는 아담한 방이 있다.

그 외에 20평 이상의 사무실이

2 개소와 안내실이 있으며 남여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본당 2 층에는 본 예배실로 측면에서 볼 때는 계단을 거쳐 올라가는 2 층으로 보이지만 광장(PLAZA)에서 볼때에는 단층에서 직접 예배실로 들어서는 기분이 들게 된다. 15 계단을 올라가면 반원아치 안에 전실이 있고 그 안에 예배실의 넓은공간이 확 트인다.

전실 양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모실은 각각 200석 정도씩이고 예배실 쪽으로 밀폐된 유리로 내부에서 유아들이 떠돌어도 음향이 새어나오지 않게 장치를 하게 된다. 예배실 아래층의 좌석은 편한 자세로 3,200석 이상이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면에 파이프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교자의 설교단은 천연색 TV를 비칠 수 있게 하여서 예배시 교회 어디서나 설교자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며 내부



벽체나 천정은 음향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음향계획을 할 예정이다. 퇴장할 때에는 폭 2m이며 12개소의 개구부로 빠져서 약 5분 내외로 완전히 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1층에서 3,200석이라고 하면 가히 짐작이 안갈 정도로 웅장하고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폭이 42m(140자), 길이가 강대로부터 예배실 뒷좌석까지 35m(약120자)이다.

본당 3층은 예배실에서 2층으로 보이며 층수로는 4층인 셈이다. 3,4층의 좌석수는 2,100석 이상 수용할 수 있으며 계단식으로 좌석배열이 되어있다. 별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이 넓기 때문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양측 계단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3층 홀을 두어서 중앙부분에 3개의 출입통로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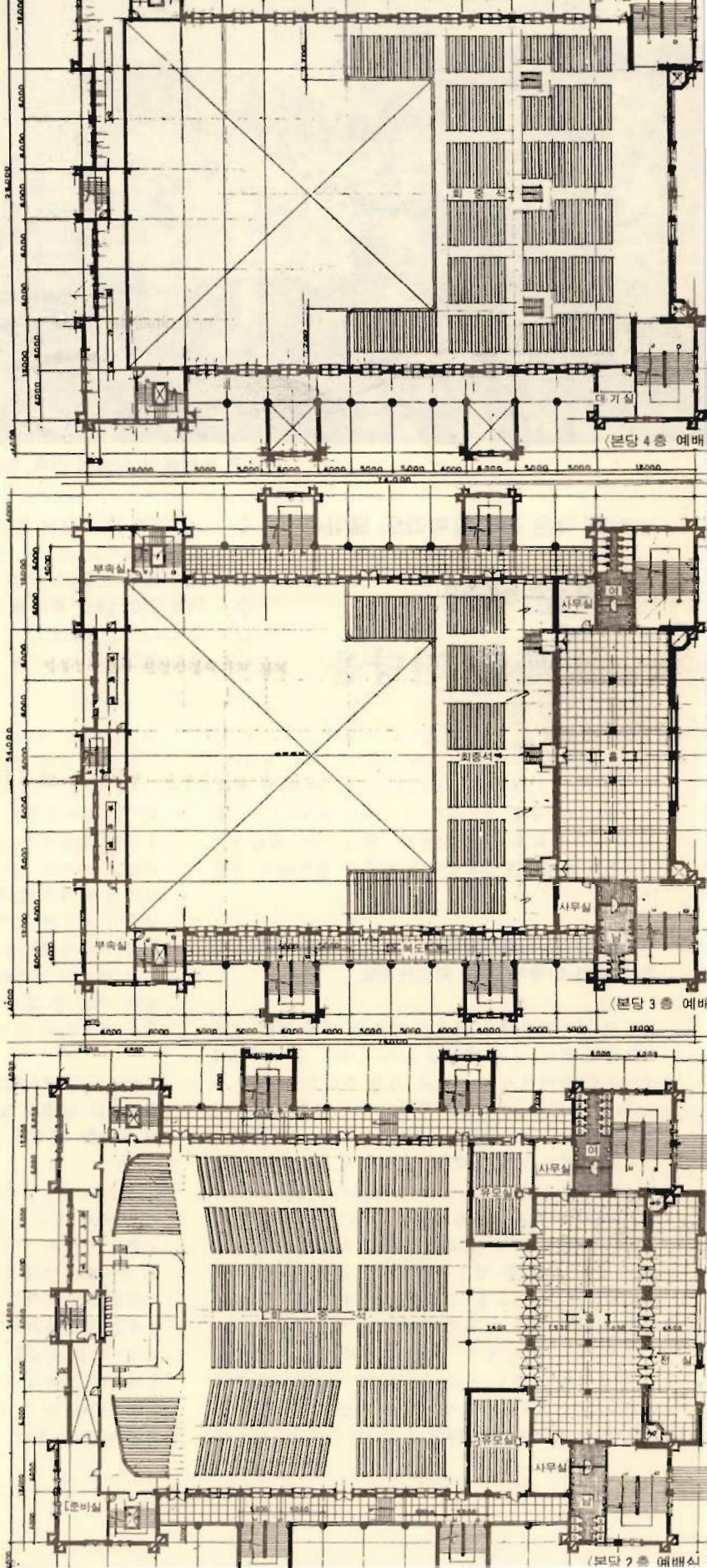
최전열석이 강대로부터 30m 거리에 있고 최후열석이 강대로부터 58m 거리에 있으며 밖으로 빠져 나가는 개구부는 9개소가 있다.

본당 2~3층의 예배실의 좌석수는 총 5,266석 이상 배치되어 있으나 최대 좌석배정을 한다면 6,000~7,000석 까지도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좌석 끝부분 바로 뒷층에는 약 25명 이상의 조명조정실, 음향조정실 등등의 용도로 쓰이는 실들이 있고 그외 목사대기실, 부속실 사무실 등등이 있고 각층마다 15명 이상의 남녀화장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본당 지하실은 각각의 기도실(합계 430평)이 있으며 식당및 지하주차장으로 빠지는 별개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고 설계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루어 졌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과 기도로 새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의 새성전 건축 현장. 모래, 자갈, 철근 등의 자재가 속속들어와〉

*비록 작은 정성일찌라도 모아서

후손에게

복의 전당을

◇… 값어치 없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푼 …◇
 ◇… 이라도 값있고 정성이 담긴 헌금으로 만이, 그리고 …◇
 ◇…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정성의 기도로 만이, 나만을 …◇
 ◇… 위한 것이 아닌 후손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
 ◇… 수 있다.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님의 노고를 나뉘 …◇
 ◇… 고자 한다. (편집자) …◇

새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이루어 지는 것이다. 온 중현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길 만이 새성전을 이루는 것이니 기도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께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까지의 건축진행과 시 당국의 설계 허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요.

우선 건축위원회가 새성전 건축을 위해 일한 경과 보고를 드리면 당초 새성전 건축부지가 시 구획정리 구역으로 묶이면서 고등학교 자정 부지로 되었던 것을 3년전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서울특별시 시장도 만나고 우리 교회의 총력을 기울여 시 당국의 건의와 진정을 하여 1977년 8월23일 우선 1,695평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지에 도저히 우리가 바라는 5,000여명을 수용할 새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계속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채를 풀어 줄 것을 제차 진정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도를 응답해 주셔서 1978년 6월2일에 새성전 부지 전부가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후 즉시 시 당국의 구획정리법에 있는 행위공사를 완료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행위공사 허가를 받아 1978년 11월18일 토목공사 업무를 선정하여 대지 정리공사를 1978년 12월 말까지 완료하

여 새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1979년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하여 모래 자갈 1,270 차 (1차에 7 M³)를 준비했으며 철근도 1,000 톤을 계약하여 금년 1월말 현재까지 592 톤이 현장에 반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행 집사님께서 헌납하신 경상도 함양의 산에서 비계목(장죽목) 4,000 본을 벌채하여 현재 운반중에 있으며 설계팀에서는 계속 설계를 하여 해빙기에는(3월말)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 당국의 건축허가는 작년 8월 건설부 당국에서 건축 자재 및 물가대책으로 억제되었던 것이 풀리면 즉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방침입니다.

금년도의 공사일정(공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재수급 방법과 노무자 수급 관리에 대해서와 금년에 필요한 자재와 노무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금년도 공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당 건물과 교육관 건물의 골체를 완성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4월초 부터는 지하실 및 기초공사부터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외 자세한 공정은 차후에 순서로 말씀드리겠으며 자재수급 방법은 될 수 있는대로 공장을 상대로 구입하려고 하며 사중이나 메이커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재는 비정수기에 현찰로 사두는 것이 유리하여 모래와 자갈은 작년 말에 싼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1차에 20,000 원에 구입했던 것이 지금은 배가 올라 40,000~60,000 원이나 되었으니



여있다. 올해 중으로 본당과 교육관의 골조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자금이 허용되는 대로 아직 오르지 않은 자재도 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자재는 시멘트 10만포 정도, 모래 및 자갈, 철근 1,200톤 정도, 철근 850톤, 기타 지붕재, 목재, 합판, 방열 및 방한재, 아스팔트 방수제품 등이 소요됩니다.

노무자 수급판리는 유명 전문 건설회사에 일괄 청부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는 공사별로 틀리겠으나 약 6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와 시공상의 어려운 점과 청부줄 공사는 어떤 것이며 자재 및 노무자 관리를 위한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시공은 기본설계에 맞춰 현장제작도(Sharp-Draw-ing)를 제작하면서 세부시공을 하며 어려운 점은 유

능한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중당이 될는지 의문이고, 또 한가지는 일반 사무실 건물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둥없이 넓은 공간을 철골보로서만 처리해야 되므로 좋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가 끊여 지거나 지연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자금이 필요한 줄 압니다. 충분한 자금만 있으면 큰 애로점이 없이 빠른 시일내에 눈에 보이는 새성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서의 하청은 음향설계, 전기설계, 냉난방, 급배수설계, I.T.V. 설계, 소방설계 등이며, 시공에서는 공장제작을 하는 것 즉 알미늄 철재 창호공사나 기타 철재공사 등이며 이것들은 건설한 건설회사에 하청할 계획입니다. 노무 및 자재 판리는 건축부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회 있을때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힘이 되고 중요한 일이므로 다시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새성전이야말로 우리들의 자손에게 물려 줄 성전임을 깨달아 이 막중한 사업을 위해 온 성도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여 온 중헌교회 성도님들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 주는 기회가 되어 봅시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것은 정성어린 값진 성전건축헌금을 해 주셔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시간을 내셔서라도 공사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피차간에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새성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숨은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쪼록 지속적인 기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펫집식 감점

하나님의 사람아!

고 제 원

금년에도 입시의 관문이 년초를 맞아 예외없이 찾아 왔었다. 지난달 수험생들에게 면접을 할 기회가 있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100 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하여 보았다. 그 가운데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이 3명 정도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도 나만이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듯하다. 자신이 무엇때문에 사는지조차도 망각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다.

목적의식이 없는 삶에서 어찌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신자로서 목적의식이 없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현상들이 해마다 이때쯤 많이 보여 진다.

목적없이 공부했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대학입시라는 관문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신앙이 흔들려야만 했을 것이다. 세상의 실패로 신앙의 실패까지 몰고 오는 처사가 바로 목적의식이 없었던 신앙생활의 산물이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위에 오신것은 목적의식이 계셨기에 오셨을 뿐 아니라 갖은 고통 당하신 것도 그것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참고 견디셨던 것이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셨기에 이 땅위에 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참고 견디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 올바른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나의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아가야지, 다짐하여 뜻을 향해 전진하는 삶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성취하고 이를 승화하여,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향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탈바꿈하는 한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되.

찬송가 감상

나의 사랑하는 책 (새215)

김 중 석 장도사

(성가부 지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생각이 난다. 이 찬송을 자주 불렀는데 그 때 마다 상상의 날개를 폈었다.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면서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밤마다 등불을 켜 놓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고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곤 하였고 아이는 이야기 속에서 잠들곤 하였다.…… 하는 식의 상상이다.

조무래기들이 시골 교회 마루바닥에 모여 앉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을 올려다 보면서 쿵쾅같은 입술을 벌리면서 외쳐대는 찬송 속에서도 풍부하고 알뜰한 상상의 세계가 - 말씀 교훈의 세계가 - 펼쳐질 수 있고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옛 일을 회상케 되며 그 때 느꼈던 감동이 새삼스러워진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이 대목에 올라치면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배운 성경 말씀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이 찬송을 꼭 가르쳐 줄 일이다. 매우 교육적인 찬송이다. 또 곡조도 어린이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어릴적에 잘 배워주면 커서 한 동안 탄 길로 갔다가도 이 찬송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도 난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찬송은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자란 어른들의 찬송이기도 하다.

그래서 4절에 그 일은 지났으나 눈에는 환하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때때로 성경 말씀 읽고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읊고 있다.

가정의 찬송으로서, 어릴때 신앙 경험을 가진 어른들의 찬송으로서 이 찬송이 더욱 사랑스럽기만 하다.

작사자 윌리엄(18~19세기)은 어떤 사람인지 내력이 알려지지 않았고, 작곡자 킬만(Charlie D. Tillman 1861~1943)은 전도사 가정에서 태어나 음악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전도가수가 되었고 작곡도 했다.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월 중 구입한 도서 *

I. 신학도서

1. 신약

- 1) 요한복음강해 : 박조준저 기독교문사간 1978. 446p

2. 교회사

- 1) 중세편 : M. 딘슬리저, 이장식역, 대한기독교서회간, 1977. 378p
2) 근세편 : J. W. C. 완드 저 이장식 역 대한기독교서회간, 1978. 418p
3) 교회사 : 김의환감수, 세종문화간사 1977. 587p

- 4) 간추린교회사 : 에이 엠 렌워크저 생명의말씀사간, 1979. 244p

3. 조직신학

- 1) 벨코프조직신학 : 루이스 벨코프저 고영민 역 기독교문사간, 1978. 304p

4. 설교집

- 1) 스펄전설교집 / 창세기 : C. H. 스펄전 저 권혁봉역 보문출판사간, 1975. 461p
2) 응답받는 기도 : 박원선저 영음사간, 1978. 317p
3) 성령충만한 생활 : 서재신저 예수교 문서선교회간, 1978. 301p

5. 기독교교육

- 1) 교회학교 교수요령 : 레이 로우젤저 양은순역 생명의 말씀사간, 1977. 138p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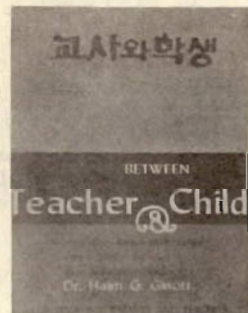
- 1) 동서저자기호표(東西著者記號表) : 이재철 저 아세아 문화사간, 1973. 69p

II. 양서구입

- 1) A Self-Study Guide (32 V) / Exodus-Revelation, Irving L. Jensen The Moody Bible Institute, 1971.
2) Ten Basic Steps Toward Christian Maturity; Campus Crusade for Christ, 1968.
3) Bible Characters and Doctrines; William B. Eerdmans 1972.

책 소개

Haim G. Ginott 저,
김희순 역



Paul H. Vieth 라는 분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다. 즉 기독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의식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또한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장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를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인간관계를 일대일의 대화(Communication)의 관계의 의미에서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Haim G. Ginott 가 쓴 교사와 학생(Teacher and Child)이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인것 같다.

이 책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빚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화 형식으로 엮어 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자적인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대화의 원리로 이끌어 주는 실제적인 안내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실제로 있는 일 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취급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특별히 교과의 일방적인 또는 독선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다루고 있는 교사와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사를 대조시켜 주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중재역할을 해 주므로써 적대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장은 교사의 자화상을 그려 놓았고 제 2장에서 4장까지는 이론적인 변화 아울러 실제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12장에는 학생들이 외상하는 교사의 모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된 절막한 한 한토막의 교사에게 보내는 시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라는 편지는 꽤 인상적이며 교훈적인 것이라고 느껴진다.

이준 교 강도사 (성경학원지도)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서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의 필요성, 특히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가 요구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혜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문명,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에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윤택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윤리 문제에는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인간 자신을 괴롭히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더욱 더 심각해진 데 있다고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윤리 형성을 토대로 한 인격 형성이 무엇보다도 우리들 개개인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기계문명이냐, 경제부흥으로 인한 생활개선은 아무런 의미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윤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인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 기독교적 윤리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① 오늘의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적 생활이 절대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② 아울러 직접적인 가정관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바른 처신 문제들이며, ③ 또한 인간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에도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되는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적 윤리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에 도달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되는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독교 윤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본질과 뜻, 다시말해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역사, 즉 성도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고, 또 성경의 조명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라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후 5:19)는 말씀에서 모든 윤리적 근거를 찾아야 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들에서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요약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속량 행위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윤리적 교훈을 낮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량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상황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더 다루는 것이 윤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윤리 생활을 연구하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근본 이상임을 밝혀보려 하는 것이다.

1. 일반윤리

일반적으로 윤리란 인간의 도덕(morals)을 말하는 것이며, 윤리학(ethics)이란 인간의 사회적 규범, 원리, 규칙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도덕생활의 과학적 연구이다. 이것은 ① 인간 생활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가? ② 도덕체제가 선한 사람이며, 어떤 것이 선한 생활을 낳을 수 있는 행동인가? ③ 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도덕상 책임의 의의와 내용이 어떠한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려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2. 신약의 그리스도 윤리관
3. 구약적 신약
4. 윤리적 주관자 인간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6. 윤리의 척도인 양심
7. 크리스찬의 윤리적 이상
 - 1) 사랑의 실천

- 2) 하나님 나라 형성
8. 생활속의 윤리
 - 1) 결혼과 가정, 이혼문제
 - 2) 경제와 윤리
9. 사회속의 윤리
 - 1) 기독교와 인종문제
 - 2) 국제질서·전쟁·평화
 - 3) 기독교 윤리와 문화

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다. 이것은 누구나 사람은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sein) 볼 뿐 아니라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sollen)을 주장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사색하며, 숙고할 뿐 아니라 그 이상(idea)을 달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또한 누구나 마음 속에 최고 선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선과 악, 그리고 정(正)과 부정(不正)간의 차이를 인식한다. 이와같이 인간 경험에 나타나는 도덕적 방면이 곧 윤리 과학의 주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는가? 에서, 그리고 무엇이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하고 물을 때에 윤리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이 서술적(敘述的)이라면 윤리학은 규범적(規範的)인 과학이다. 윤리학은 도덕생활에 규범적, 객관적인 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그 본무이다. 이것이 또한 윤리학을 단순한 경험적, 주관적, 서술적인 이상의 수준에 올리는 것이다.

2.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성품, 죄악,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역사의 종말 등 교의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 기초로 삼고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의학이 무엇을 믿어야 하나? (What ought to believe)를 취급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려는 윤리학은 무엇을 행해야 하나? (What ought to do?)를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행동과 그 행동의 표준이 될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추출(抽出)한 원칙에 그 주요 쟁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판단을 내릴 요점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길이며, 해서는 안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일

상 생활의 긴장이 격심한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 긴급한 요청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실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온갖 모순을 해결할 정확한 청사진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적 경험과 인격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행동을 낼 수 있다. 잠언 23:7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한 말씀대로 인간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를 막론하고 항상 그 생각이 행동에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품격과 그 행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독교 윤리란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지고 또 표준화한 삶의 길을 조직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그것을 현실의 각양 문제와 판단에 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윤리는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독교적 판단을 내릴 요점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길이며 해서는 안될 일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아래의 3가지 근거에 의하여 기독교 윤리 문제를 취급해 보고자 한다.

1) 신학적이어야 한다.

어떤 것을 바로 아는 길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에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유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 또는 인간생활의 의의와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을 아는 궁극적 교훈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진리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이 기독교적이라야 함은 윤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조명되어져야 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곧 신자생활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기독교 윤리를 참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점이며, 표준이며, 권위가 되는 것이다.

3) 개혁파적이어야 한다.

기독교 가운데도 근본 진리에 있어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개혁파적이라 함은 적어도 다음을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① 신학은 하나님의 중심이라야 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쳐야 한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부터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학이다.

② 계시관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라야 할 것. 초자연적 계시의 필요성과 아울러 이 계시가 그의 초연(超然) 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기인함을 강조한다.

③ 기독교관은 풍부하고 순결해야 할 것.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밝혀 보여준다.

그는 신인(神人)으로서 그의 도성인신(Incarnation) 하심과 속죄하심은 독특하며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왕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그의 말씀을 일점일획이라도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파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다. (Augustine, Calvin, A. Kuyper, Hodge)

이와같은 입장이 우리가 윤리 문제를 공부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개혁과 윤리의 정의

㉞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비추어 참으로 선한 생활의 성질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신학적 과학이다.

㉟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규범에 비추어 이에 일치되는 옳은 생활이 무엇임을 결정하는 신학적 과학이다.

㊱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의무 생활의 근거와 표준은 연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신학적 과학이다.

㊲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을 연구하되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바 그의 뜻을 실행함이 곧 생활의 근본 이상이 됨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상 모든 관계에 있어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을 결정하는 신학적 과학이다.

1979년 제 1 학기 성경 학원 학생모집 안내

구 분	입 학 자 격	모집인원	교 과 목	강 사 진	수업일자
보통반	본교회 남녀 세례 교인(타교회 교인은 본 학원 이사회의 인준 받은 자)	60명	이사야서, 다니엘, 스가랴, 목회신서, 고린도서 계시록	김희보 신성종 이종윤 김하진 이성봉	매주 월. 화, 목 오후 7 시
연구반	본교회 남녀 세례 교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교회 교인은 본학원 인준 받은자)	30명	출애굽기, 요한복음, 영어성경, 헬라어문법, 기독교윤리, 교회사	신성종 이종윤 정상우 김하진 이성봉 이준교	
중등반	본교회 등록된 15~20 미만의 교인으로 중학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타교회 교인은 본 학원 승인)	60명	성경,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주산	추후 발표함.	
지도자 양성부	본교회 남녀 세례교인 (타교회 교인은 본 학원 이사회의 인준 받은 자)	60명	성경개론, 주교지도 전도법 교회정치, 교회음악 교리 교회사, 교육원리, 교수법	김희보 김재창 김 하진 이승근 이준 교 김중석 김영희	매주 일 오전 11 : 50

*원서제출 기간 : 1979. 2. 11~28 (성경학원 사무실)

※개강일자 : 보통·연구·중등반 : 1979. 3. 5 오후 7 시 지도자 양성부 : 1979. 3. 4 오전 11시 50 분

※특전 : 지도자 양성부 수료자에게는 주일학교 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5 : 1~11

고난 중의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 당한 때에 지은 시로써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애절한 기도 즉 정성으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고, 못본 척하여 숨지 마시고 들어 주시고, 비천하지만 불쌍히 여겨 굶어 보사 전지 주유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근심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하여 긴 탄식이 나오는 입장에서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통을 당하오니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건디기 어려운 난관에 처하면 질겁하여 기도도 못하게 되는데 다윗은 고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속하여 기도해 힘냈습니다.

고난중의 기도가 나라를 건집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을 주님께 부르짖어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생활이 됩니다.

시 55 : 16~23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회박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몸으로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저녁 아침 낮 할 것 없이 계속하여 질서 있게 ① 내 근심과 탄식을 아뢰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실 줄을 확신했고 ② 아무리 나를 치는 강한 원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무서운 전쟁에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고 ③ 하나님의 구원은 태고부터 계속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불안과 공포속에서 평안한 자리로 옮겨실 것을 확신했고 ④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악자가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구하였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의 실패를 구경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같이 하시었고 다니엘, 요셉이 가는 길에 버리지 않고 같이 하시었습니다. 악

마가 잔인하여 의인을 해치려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 복을 안겨 주십니다.

악한 자의 권세는 꺾여지고 간악한 자의 지혜는 자기를 잡는 함정을 파나니 권세있는 인생을 겁내지 말고 인생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부탁하며 고요히 기다려 보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위하여 내 할 일만 계속합니다.

시 56 : 1~9

위험을 면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리라』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잡혀 인간적으로 끝이 난 생명이요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즉 악마가 좌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좌하고 실패하기 쉬운 세상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낙심 말고 범피할까 조심하고 떨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약속을 주시고 진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며 ②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③ 끝까지 범피하지 말고 인내하며 ④ 하나님을 의존하여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한 때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시 56 :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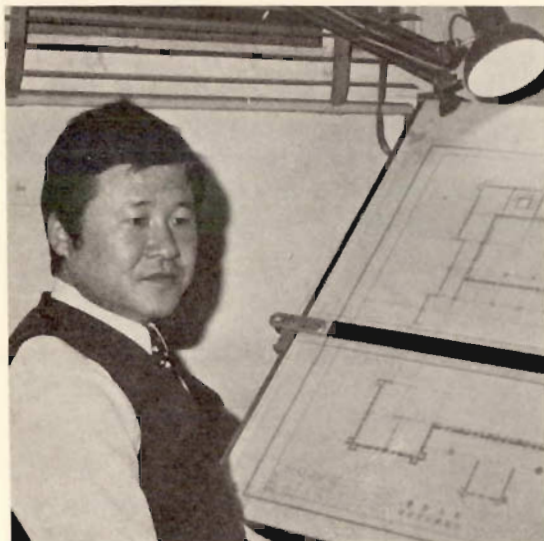
기도의 확신과 각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실하신 약속을 받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진실을 믿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담대한, 겸손한, 진실한 찬송이 울려 나올 뿐입니다.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의지하게 되어 인생 따위는 두려워할 것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지금 약속한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릴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수렁에서 건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보려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어 봅시다.



새성전 건축설계의 산파역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남 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월간 중현에서는 이달에는 새성전 건축설계 사무실을 찾아 건축기사 최 환 집사를 만나 본다 ...○

숨은 일꾼은 늘 말없이 조용히 충성과 봉사를 하는 법이다. 이러한 숨은 일꾼들을 찾아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현대에는 매우 아쉬운 것 같다.

기술적인 동료의 세계를 떠나 외진 곳에 와서 외로움을 느껴 보았다는 새성전 건축설계의 주역 최환 집사님께서서는 그래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들이 계시기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기도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

집사님께서서는 중현교회에 1975년 1월 1일부터 나오셨다. 중현교회 오시기 전에는 1966년 11월에 천주교에서 영세까지 받아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차차 개종의 마음이 생겨 1975년부터 개종하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 중현교회와의 인연은 임현덕 장로님과 성전건축에 대해 말씀을 교환 하다가 깊은 인연이 되어 개종하면서 바로 중현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시기 바로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계획설계 및 감독 일을 맡아 보시다가 건축위원장(김기정 장로)께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 같이 수고 좀 하자는 청탁에 어떻게 수락을 했는지도 모르게 수락이 되어 1977년 3월에 건축부에 들어 오셔서 그동안 중현기도원을 비롯하여 현재는 새성전 건축의 설계 및 시공 감독까지 맡아 보시는 일인 삼역의 역군으로 계신다.

새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특히 요즈음 건축의 전성기이기에 건축기사의 부재현상을 빚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오히려 보람되게 생각하신다며 늘 기도하는 중에 착상을 찾아 설계에 반영하시는 것이 굉장한 힘이며 보람이시란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설계토록 지시해 주신다며 설계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사모님과 슬하에 2 형제(9 살, 7 살)를 두고 계시며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1965년에 졸업하시고 대성건설, 대한통운 시설과, 동화건축 연구소, 개인 설계사무소,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시공설계 및 감독의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건축 설계 및 시공 1 급기사 면허까지 가지고 계시는 베테랑 교회 건축의 문제점은 5000석 확보로 인하여 길이와 폭이 커져 음향, 시계, 통풍, 환기의 문제가 있다. 새성전 건축의 본당의 길이(강대상에서 맨 뒷자리)가 58미터나 되니 지금의 교회(25미터)의 두배가 조금 넘는 길이이며 외부적인 문제점은 물 불이든 일이 매우 어려운 공사라며 온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있어

현재 설계작업 진행 현황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세부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설계팀 구성에서 건축기사 부재사회에서 두사람의 기사를 더 확보(현재 1명)해야 하는데 구하기가 어려울 뿐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 오느냐도 매우 중요하므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씀하신다.

설계와 시공 감독까지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서는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현장으로 설계실을 옮겨 그곳에서 설계와 시공을 겸할 예정이다.

성도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다른 여러가지도 많으나 역시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힘이 된다 하시면서 기도의 지원을 특히 요청하셨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들

지난 달에 해외복음선교회에서 발행한 「선교월보」를 이달부터는 월간충현에서 다루게 됩니다. 월 1회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실게 되오니 계속 관심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외복음선교회 제공)

인도네시아 - 서만수선교사

1979년도 선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자.

분기	사 업 내 용	예산(\$)	비 고
1 / 4	자바순회	500	개척지
	장학금 발송	448	
	부활절행사	200	
2 / 4	중부슬라웨시순회	800	보소지역 마르즈지역 오지개척자 30명
	남부슬라웨시순회	500	
	개척자파송및 교회보조	7,000	
3 / 4	어린이성경학교	200	
	가정주간행사	200	
	하기수양회	200	
4 / 4	추수감사절행사	200	스리랑카 인도각 1명
	제3국 선교사 파송식	3,000	
	합동세례식	200	
	성탄절행사	300	
	선교부이사회및 지부협조	2,000	

홍 콩 - 홍종만선교사

홍콩한인교회는 금년부터 해외선교 특히 중국대륙선교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1. 온 교인이 선교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년도에 선교비예산을 설정함.
2.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예산을 설정함.
3. 선교의 주일을 제정하여 계속 선교의식을 고취하고 있음.
4. 중국대륙선교 지망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불하여 훈련할 계획.
5. 인도네시아에 선교보조비 정기 송금함.

애 굽 - 이연호선교사

1. 선교관용차(7인승)를 구입하여 보다 원활한 기동력을 가지고 선교하게 됨.
2. 애굽장로회 산하 신학교 제 2 학기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강의를 계속하고 있음.
3. 신학교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훈련중에 있음.

서 독 - 육호기선교사

1. 비스바덴 한인교회
 - 1) 제직회를 대신하여 실행위원회(자격: 세례교인)를 10명 구성함.
 - 2) 주평균 35명 출석하여 금년도 예산은 35,000 마르크(한화 9 백여만원)를 계획함.
 - 3) 금년 70명 장년출석을 목표하고 기도중.
2. 뮌헨부룩 한인교회
 - 1) 제직회를 대신하여 평신도운영위원을 10명구성함.
 - 2) 비스바덴과 뮌헨부룩 사이는 왕복 400km, 매 주일 두곳을 다니시면서 예배를 인도 하시는 육선교사님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람.

호 주 - 김태현선교사

1. 1월13일 첫 제직회를 실시, 5개부서(서무, 전도, 교육, 재정, 성가부)를 조직함.
2. 금년 80명 장년출석을 목표하고 기도중.

일 본 - 유병세선교사

1. 각종 전도(축호, 대합실, 개인, 입원환자 대상)를 실시하고 있음.
2. 타선교사(브라사선교사)와 협력하여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음.
3. 차운순여사(일본에 외국인전도인중 유일한 한국 사람)와 선교협력을 벌임.
4. 주일학교에서 성경공부 인도.
5. 한번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여 성장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 구역소식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1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

1. 금년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새성전 건축**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애굽의 이연호 선교사, 서독의 육호기·박용삼 선교사, 호주의 김태현 선교사,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의 **모든 복음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 합니다. 이복에 있는 우리 동도들, 무너진 제단들을 하루속히 일으켜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감전의 영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본 교인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영육간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4. 장로와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성가대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책에 **충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5. **15부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명실공히 천국일꾼으로 키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 주옵소서.
6.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움 받은 주님의 종들과 **한국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5천만 우리 겨레가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은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산업의 계속적인 부흥 발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7. 공산치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과 **세계의 모든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산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자유전영의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 당하게 하옵소서

제 1 지구

동대문구역	조성분	종로구종로 6가197번지19동10통6반
성북구역	김용민	성북구성북동348-3 14통 5 반
미아①구역	염미숙	도봉구미아 4 동3-385 1통9반
송인②구역	홍희숙	동대문구송인 1 동61-39 6통2반
동송구역	최시현	종로구동송동산2 동송아파트29동301호
장위②구역	함양용	성북구장위동238-117

제 2 지구

전호구역	강호진	강남구천호2동338번지13통4반
풍납구역	박대용	강남구풍납동340 태양금속공업사
풍납구역	서주광	강남구풍납동340 태양금속공업사
답십리구역	김준자	
홍익구역	구윤희	성동구하왕십리1동742-2 5통4반
홍익구역	승관옥	성동구도선동253 4통3반
면목②구역	유재선	동대문구면목 2 동177-34
중곡②구역	정관국	성동구중곡 2 동119-4 16통 4 반
구의구역	김숙희	
군자구역	손형준	성동구능동320-3 11통 7 반
송정구역	정국진	성동구군자동144-10, 28통 3 반
망우구역	손석진	동대문구망우 2 동407-29 2통1반
군자구역	허연경	
태능구역	윤기순	경기도양주군구리읍인창 2 리312
태능구역	조윤심	경기도양주군금곡 2 리642

제 3 지구

성수구역	강인숙	
이태원구역	이금자	용산구이태원59-12 2통1반
도곡구역	이혁수	강남구도곡동영흥아파트41-305
목정①구역	이원옥	
강남②구역	신진숙	
이태원구역	오원옥	용산구이태원2가452 14통13반
잠실②구역	박숙례	강남구잠실2동 주공아파트254동507호
도곡②구역	황인옥	강남구명동개나리아파트31동785호
보광구역	조찬기	용산구주성동48-3 2통 2 반

제 4 지구

반포②구역	신진숙	강남구신반포동주공 2 단지204동108호
필동①구역	임병문	중구필동 2 가84번지 4 통 2 반
록석구역	이재영	관악구록석동31동31-101 6통6반
시흥구역	전해순	영등포구시흥 1 동151-3 36통 7 반
회현구역	김재숙	
사당구역	김 정	관악구사당 5 동319-43, 29통 4 반
반포①구역	최영준	관악구동작동307 반포아파트74동405호
용산구역	박심미	용산구동부이촌동302-54
성남구역	박수경	경기도성남시대동2동531-3612, 18통3반
서강구역	박영구	
삼도②구역	여수덕	관악구삼도1동326-7 9통2반

필 동 ③ 구역 김달수 중구필동3가17-4
 필 동 ① 구역 황선희 중구에장동2가64번지13동3반
 방 배 구 역 최용준 관악구방배동530-31 25동2반
 마 포 구 역 안인옥 마포구공덕동384-53 18동1반
제 5 지구
 동 교 구 역 이명현 마포구동교동175번지16호14동3반
 북 가 좌 구 역 한혜숙 서대문구홍은3동403-12 10동4반
 신 촌 구 역 원식동 중구충림동116번지2동6반
 서 문 ② 구 역 김기숙 중구충림동116번지2동6반
 을 지 ② 구 역 김영희 종로구내수동98-2
 효 자 구 역 강신일 서대문구불광동445-235 19동6반
 서대문 ② 구역 조희자 마포구아현동596-445
 갈 현 구 역 박종희 영등포구개봉동337-13 신촌아파트2동304호
 신 촌 구 역 김학래 영등포구개봉동10-38 4동6반
 개 봉 구 역 정홍준 중구오장동101-11 5동28반
 개 봉 구 역 안문자 중구오장동101-11 5동28반
 중 무 ① 구 역 박미숙

* 주소가 없는 교우는 등록은 했으나 아직 교적 정리가 안된 사람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속히 확인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드립니다. (1월중 별세)

- 최임덕권사 / 2 일 별세, 4 일 장례
- 이임이씨 / 후암구역, 4 일 별세, 6 일 장례
- 정시태씨 / 신길구역, 9 일 별세, 11 일 장례
- 오종락장로 / 김포연권사 부군, 21 일 별세, 25 일 장례
- 이보금씨 / 김연식집사 모친, 22 일 별세, 24 일 장례
- 김봉환씨 / 박영순집사 모친, 22 일 별세, 24 일 장례
- 최 준씨 / 김영희권사 부군, 23 일 별세, 25 일 장례

*축하합니다. (1월중 결혼)

- 한기호군 / 중곡 ② 구역, 11 일 오후 1 시 YWCA에서
- 박애숙양 / 한순원집사 장녀, 20 일 오전 10 시 엠베써더 호텔에서
- 백안기군과 하현숙양(명륜구역) / 20 일 오후 3 시30분 YWCA에서
- 김복주군(전영희씨 장남)과 한명자양 / 17 일 오후 1 시 행복예식장에서
- 장태숙양 / 김선복집사 2녀 24 일 오후 1 시 L.C.I. 예식장에서

각 구역에 알립니다

- 1979년도 구역예배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 3월에는 9, 23일에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 구역예배의 공과는 지난해 월간총현 11월호에 게재된 구역공과(15, 16과)를 사용합니다.
- 구역예배의 성경공부 예비공부가 3월 4일(일) 저녁예배 전(오후 6시)에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수첩 ①

구역보고서 작성요령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 회장〉

구역보고서는 매달 권찰회가 모이는 4차 주일 전 금요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달 모이는 권찰회의 때에 꼭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2통을 작성하여 한통은 교회에 제출하고 다른 한통은 구역장이 보관한다.

금년부터 구역보고서 서식이 바뀌게 되어 보고서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1. 구역의 현재인원 보고

이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를 통계 보고하는 것이다. 세례(입교), 유아세례, 학습, 원입교인(학습, 유아세례, 세례 등 아무것도 받지 않고 출석하는 교인)을 신급별로 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2. 심방자 보고

정기적으로 심방한 권사와 권찰들의 이름과 그 심방 회수를 주 1회로 간주하여 보고한다. 지난달 보고한 이후의 금요일 수에 의거 심방한 숫자 표시만 하면된다. 연말에 가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개근자와 정근자만을 시상할 계획이니 매달 꼭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성실하게 보고만 한다면 연말에 별도로 개근자와 정근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시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3. 구역예배 보고

금년에는 169개 구역이 다 같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달 격주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된다. 3, 4, 5, 6, 9, 10, 11월의 7개월만 구역예배를 드림으로 1년에 14회 드릴 수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각 가정에서 각 순회장소를 정한다면 친목도 되고 피차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는 구역장이 하고 기도는 구역원이 하되 강사는 물론 구역장이 담당한다. 본교회 교역자나 장로가 참석하였을 때에는 강사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함이 좋다. 다만 구역예배의 공과가 순서대로 강의되고 다 공부되도록해야 한다. 부득이 연합으로 모일 때에는 각 구역장들이 서로 의논하여 윤번으로 실시함이 좋다.

4. 기타 보고

이란에는 그달에 구역에서 있었던 출생, 사망, 환자, 이사, 등록등 구역원의 이동 사항을 간단히 기록하면 된다.

3년이 넘도록 구역장노우트를 써 주신 백성통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김재창목사님이 구역장수첩이란 제목으로 계속 써주십니다.
 〈편집자〉

시내 전 교회 대상 교사특강

= 2월 1, 2일 양일간 =

우리교회 주일학교 영아부는 지난 2월 1, 2일에 우리 교단에 소속된 시내 전 교회를 대상으로 교사특강을 가졌다.

1975년에 우리교회 영아부가 개교를 한 이래 영아부는 계속 부흥, 발전을 거듭하며 가정에서의 교육과 부모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두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일학교의 한 부서가 되었다.

이에 보다 폭을 넓혀 이처럼 중요한 영아교육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영아부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겸해 하고자 전 교회의 참여하에 실시하였다. 「영아부 교육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갖고 모인 금인의 교사특강은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특강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 부모와 가족에 관한 교육, 참다운 부모상, 모태교육의 가능성, 할례와 유아교육등의 특강과 영아부에서 편집·발간한 영아부 찬송을 배우는 시간등을 가졌다. 연일 60여명의 타교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영아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사특강에는 예배설교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특강 강사에는 영아부 지도인 정소영 전도사가 담당하여 수고를 하였다.



〈주일학교 영아부의 교사특강모습〉

선교부 개교예배

우리교회의 15번째 주일학교가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에 개교예배를 드림으로 문을 열었다.

교육위원장 정상우목사의 사회와 선교부 초대부장 위영환 장로의 기도, 주일학교 교장인 김창인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이날의 개교예배는 중학생들로 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구성을 가진 학생들과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등 많은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일학교 교장 김창인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하여 앞으로 선교부에서 자란 사람들이 10년이내에 100명의 해외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한 남북이 열리는 날이 북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사

람들로 키워 질 것을 부탁했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시켜 명실공히 선교사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앞으로 선교사 혹은 평신도 선교사의 인물 양성을 위하여, 또한 선교사업에 위한 교육적 지도 전달과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선교부는 2월 1일(목) 중등·고등반 대상으로 한 강의를 시작함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이어 금요일에는 대학·청년반이 주일에는 장년반이 계속해서 강의를 가졌다. 선교사코코스(중등, 고등, 대학청년반)는 3년과정으로, 평신도 선교사 코코스(장년반)는 1년과정으로 짜여진 교과과정에 의거 교육자는 각 학기마다 1과목을



〈선교부 개교예배 모습〉

선정하여 수강하고 학과를 마치면 이수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서연락함 설치

교육위원회는 1979년도에 들어서면서 행정기능을 강화하며 보다 원활한 문서 수발업무를 위하여 문서 연락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부 주일 학교는 교육위원회와의 문서 수발업무를 이 문서 연락함을 통하여 하면 된다.

각부 겨울 계절학교



〈유·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

1월22일 주일학교 고등부의 동기수양회를 시작으로 1979년도 각부 주일학교의 겨울 계절학교가 그 막이 올랐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4일간) 어린이 새신자부, 유년부, 초등부의 겨울 어린이성경학교가 「기쁨의 생활」이란 주제로 열렸다. 또한 산업전도교육부도 1월29, 30일 양일간 충현기도원에서 모였

고, 2월 19~22일에는 대학부 동기동양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다.

2월26일 부터 계속해서 중등부, 유치부, 영아부의 계절 학교가 3월 1일까지 열리게 된다.

대구에서 견학

지난 2월 1일 대구 동신교회(당회장: 김창현목사)에서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전도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견학하기 위하여 대구 동신교회의 김창현목사의 주교교사 및 관계자 33명이 와서



〈견학자에게 설명〉

견학을 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정은표 집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운영방안을, 전도위원회의 김영희 전도사가 전도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설명하며 피차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휘·반주자 이동

그동안 대학부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하신 임정배선생과 반주자 허예경선생의 사임에 따라 주교의 지휘자, 반주자를 일부 이동 하였다.

이동: 대학부반주자 윤경숙

(전 고등부 반주자)

고등부반주자 이애나

(전 중등부 반주자)

중등부반주자 김은백

(전 유년부 반주자)

유년부반주자 남명우

(전 유치부 반주자)

신임: 유치부반주자 김은희

교사의 기도

아침
실
력
의
다
니
엘
이
되
게
하
소
서

주여,
이 아이는 자라서
죄악의 사회에 생명의 배를 띄우는
노아가 되게 하소서.

거래의 눈 어두운 영혼을 울려
도무지 잠잠쳐 앉는
에레미야가 되게 하소서

바른 자를 시기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도 주를 따라 죽으러 가자 하는
젊은 도마가 되게 하소서

온갖 이단과 가짜 기독교의 시대에
산에 올라
불 거루기를 하는
권능의 엘리야가 되게 하소서

어새 찍어
사자굴을 준비하는

이 우상 숭배의 시대에서
아침마다 동창(東窓)을 여는
실력(實力)의 다니엘이 되게 하소서

우리 형제 천 칠백만이
그 곳에 있사오니
북녘의 거리마다
예수친당을 외치는
요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예비하여
양자강에서 세례주는
선교요한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소명 앞에 흰 무릎 꿇은
어린 사무엘이 되게 하소서

윤 완 철 〈대학부 교사〉

주일 예배시간 일부 변경

= 4 부 예배를 오후 2 시로 =

당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주일 예배시간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후 3시 30분에 드리던 4부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게 되었다.

이는 매주 2, 3부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사람이 많아 짐에 따라 취해진 비상 조치가 된 것이다. 4부예배가 2시에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본당을 사용하는 모든 지회의 활동 및 집회, 회의는 4부예배 후로 모이게 된다.

따라서 정기제직회, 남여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등이 4부예배 후로 밀려나게 됨으로 가능한 한 제직들은 4부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2, 3부에 집중하던 인원이 자동적으로 분산하게 되는 효과도 아울러 갖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3부예배에 이어 4부예배의 설교를 담당하게 되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온교우의 기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오중락 장로 별세

우리교회의 공로장로인 오중락 장로가 향년 82세로 지난 1월21일 별세하여 25일 많은 교우들의 애도속에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고 오중락장로는 1964년 5월 16일 제 9대 장로로 선임되어 시무 장로로 충성되어 봉직하다가 1973년 3월 25일 공로장로로 추대되었다.



〈고 오중락장로 장례식〉

9 : 15 (김석원 전도사)

• 중등부 :

내 증인 / 행 1 : 8
(남성호 전도사)

• 고등부

이 시대 이 사명 / 막
28 : 16~20 (이승근 강도사)

• 대학부 :

성경적 선교관 / 요 20 : 21
(윤형철 강도사)

• 산업전도교육부 : 빛을 땅 끝까지 / 사 49 : 6, 7

(김중석 강도사)

제 5 회 선교주일행사 끝내

교회는 지난 1월 28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1975년 제정된 이 선교주일은 금년들어 5회째 맞게 되는데 이 선교주일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있다.

해외복음선교회에서는 이날 1, 2, 3, 4부 예배를 통해 선교회비를 작성케 하고 새 선교회원은 모집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각 부 주일학교에서는 선교에 관한 주제로 설교, 강의를 하고 분반 공부 및 토의 시간에도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작성한 교재를 중심으로 선교에 관한 과목을 공부했다. 또 선교회에서는 1979년부터 해외선교 홍보를 위한 「선교월보」를 발간키로 하고 그 1호를 선교주일에 발행하여 전교인에게 배부했다. 이 선교월보는 각 선교사의 소식을 간단하게 실고 기도 제목을 적어 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회 뜰

에 선교사진 전시를 하기도 했다. 이날 각 예배, 집회의 설교, 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새신자부 :

선교사를 통한 전도 / 행
13 : 47~49 (안석렬 전도사)

• 영아부 :

성령의 역사와 선교 / 행 1 : 4~8 (정소영 전도사)

• 유치부 :

요나의 회개 / 요나서
(정연희 전도사)

• 유년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막
16 : 15, 16 (이양우 전도사)

• 초등부 :

선교사의 자격자가 되려면 / 행



〈선교주일행사 - 전시회〉

외국교회와 자매결연

교회는 지난 2월 7일 임시 당회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당회장 : 이종윤 목사)가 청원하여 온 자매결연 관계를 검토하고 결연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예루살렘교회, 캐나다의 칼가리 한인교회, 아르헨티나의 재야중앙교회에 이어 4번째로 해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

필동 ③ 구역	김달수	중구필동3가17-4
필동 ① 구역	황선희	중구예장동2가64번지13동3반
방배 구역	최용준	관악구방배동530-31 25동2반
마포 구역	안인옥	마포구공덕동384-53 18동1반
제 5 지구		
동교 구역	이명현	마포구동교동175번지16호14동3반
북가좌 구역	한혜숙	서대문구홍은3동403-12 10동4반
신촌 구역	원식동	
서문 ② 구역	김기숙	중구충림동116번지2동6반
을지 ② 구역	김영희	
효자 구역	강신일	종로구내수동98-2
서대문 ② 구역	조희자	
갈현 구역	박종희	서대문구불광동445-235 19동6반
신촌 구역	김학래	마포구아현동596-445
개봉 구역	정홍준	영등포구개봉동337-13 신홍아파트2동304호
개봉 구역	안문자	영등포구개봉동10-38 4동6반
중무 ① 구역	박미숙	중구오장동101-11 5동28반

* 주소가 없는 교우는 등록은 했으나 아직 교적 정리가 안된 사람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속히 확인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위로드립니다. (1월 중 별세)

- 최임덕권사 / 2 일 별세, 4 일 장례
- 이임이씨 / 후암구역, 4 일 별세, 6 일 장례
- 정시태씨 / 신길구역, 9 일 별세, 11 일 장례
- 오종락장로 / 김초연권사 부군, 21 일 별세, 25 일 장례.
- 이보금씨 / 김연식집사 모친, 22 일 별세, 24 일 장례
- 김봉환씨 / 박영준집사 모친, 22 일 별세, 24 일 장례
- 최 준씨 / 김영희권사 부군, 23 일 별세, 25 일 장례

* 축하합니다. (1월 중 결혼)

- 한기호군 / 중곡 ② 구역, 11 일 오후 1 시 YWCA에서
- 박애숙양 / 한순원집사 장녀, 20 일 오전 10 시 엠베써더 호
텔에서
- 백안기군과 하현숙양(명륜구역) / 20 일 오후 3 시 30 분
YWCA에서
- 김복주군(전영희씨 장남)과 한명자양 / 17 일 오후 1 시 뽕북
예식장에서
- 장태숙양 / 김선복집사 2녀, 24 일 오후 1 시 L.C.I. 예식
장에서

* 각 구역에 알립니다 *

- 1979 년도 구역예배는 3 월부터 시작합니다.
- 3 월에는 9, 23 일에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 구역예배의 공과는 지난해 월간총현 11 월로에
제출된 구역공과 (15, 16 파) 를 사용합니다.
- 구역예배의 성경공부 매비공부자 3 월 4 일(일)
저녁예배 전(오후 6 시)에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수첩 ①

구역보고서 작성요령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 회장)

구역보고서는 매달 권찰회가 모이는 4 차 주일 전
금요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달 모이는 권찰회의 때에
꼭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2 통을 작성하여 한통은
교회에 제출하고 다른 한통은 구역장이 보관한다.

금년부터 구역보고서 서식이 바뀌게 되어 보고서
의 내용은 3 가지로 요약된다.

1. 구역의 현재인원 보고

이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를 통계 보고하
는 것이다. 세례(입교), 유아세례, 학습, 원입교인
(학습, 유아세례, 세례등 아무것도 받지 않고 출석
하는 교인)을 신급별로 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
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2. 심방자 보고

정기적으로 심방한 권사와 권찰들의 이름과 그 심
방 회수를 주 1 회로 간주하여 보고한다. 지난달 보
고한 이후의 금요일 수에 의거 심방한 숫자 표시만
하면된다. 연말에 가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개근자
와 정근자만을 시상할 제책이니 매달 꼭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성실하게 보고만 한다면
연말에 별도로 개근자와 정근자 명단을 제출할 필요
가 없게 된다. 또 시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도 없
게 될 것이다.

3. 구역예배 보고

금년에는 169 개 구역이 다 같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달 격주로 구역예배를 드리
게 된다. 3, 4, 5, 6, 9, 10, 11 월의 7 개월만
구역예배를 드림으로 1 년에 14 회 드릴 수 있다. 여
건이 허락하는 각 가정에서 각 순회장소를 정한다면
친목도 되고 피차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는 구
역장이 하고 기도는 구역원이 하되 강사는 물론 구
역장이 담당한다. 본교회 교역자나 장로가 참석하였
을 때에는 강사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함이 좋
다. 다만 구역예배의 공과가 순서대로 강의되고 다
공부되도록해야 한다. 부득이 연합으로 모일 때에는
각 구역장들이 서로 의논하여 윤번으로 실시함이 좋다.

4. 기타 보고

이란에는 그달에 구역에서 있었던 출생, 사망, 환
자, 이사, 등록등 구역원의 이동 사항을 간단히 기
록하면 된다.

3 년이 넘도록 구역장노우트를 써 주신 백성
룡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김재
창목사님께 구역장수첩이란 제목으로 계속 써주
십니다. (편집자)



2월의 행사

1-2일	영아부 교사특강
4일	정기제직회
11일	남전도회 헌신예배 남전도회·권사회 월례회 월간충현 편집위원회 월례회
14일	권사회 임원 철야기도회
18일	산업전도회·여전도회 월례회
19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19-22일	대학부 동기수양회
22-24일	김창인목사 성경특강(디모데전서)
24일	구역장 실무훈련
25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전도위원회·구역권찰회 월례회
26-28일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26-3월1일	중등부 동기수양회
27일	정기 당회

편집하고 나서

※...금년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새성전 건축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성전 건축의 마음을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1979년의 새성전 건축계획을 살펴 본다.

지난해 2월에 이은 새성전 건축 설계로 살펴본 이모 저모를 생각해 본다. 과연 새성전이 완공 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것 같은 기분이다. 자세히 나온 새성전의 구석 구석을 살펴 보느라면 어서 속히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가 현장에 쌓여지고 있

다. 금년에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건축 위원장 김기정 장로를 만나 알아보았다.

또한 "이달에 만난 사람"에는 건축설계 사무실의 최환집사를 만나 그동안 보이지 않게 수고해 온 모습을 알아 보았다.

※...손봉호박사의 "현대사회를 향한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란 특강을 지상특강으로 엮어 소개한다. 현대사회를 사는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율무들을 예리하게 파헤쳐 준 이 특강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글이 될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979년 월간충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이사래 손경수
오테용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테용 고재원

월 간 충 현

2월호

제 7 권 통권 제 62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 가 36
267-9937 · 9738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짓지 않아



백 성 룡 목사

(부목사)

문 /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었도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써 낳음이라”고 하였는데 이중에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답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에는 몇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죄든지 계속 상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을 능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범죄할 의사가 없어 졌다는데 그거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호언 장담을 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 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꾀담은 중생한 사람도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쯤은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어느 정도 이성을 넘지 않는다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②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배교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경중 대소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몸소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길이 있어서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되지만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없이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요일 5:16)

③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말쑥의 능력과(어거스틴) 성령의 역사(결빈)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거듭난 사람도 그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세가지 해석은 다같이 받아 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입장입니다.

2.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되 사함 받을 길이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따위의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즉 거듭난 사람의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여간 범죄했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보혜사 이십니다. 범죄할 때 책망하시고 기어코 회개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볼때 그의 범한 죄는 성령을 배방하기까지 즉 사망에 이르기까지 범한 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경중 대소를 가지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니 아니 하는 것과 같은 말은 자칫 잘못하면 형세를 정죄(심판)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② 양심의 가책과 죄책이 있어도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운동은 양심운동 이상의 것으로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양심운동을 하라는 말을 들읍시다. 이들 중생하지 못한 양심은 도덕수준에서 인간 본위로 스스로 위안을 받자는 것에 불과하고 근본 죄악의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기대해서만 회개가 가능하고 또 다시 범죄하지 않게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 털끝만큼도 흠이 없이 완전한 새성전 설계를 주시옵소서!
-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좋은 재료들을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 이 모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은행에 있사오니 누구를 명령하여 수표를 떼게 하시겠나이까? 모자람이 없이 주시고 바치는 자마다 10배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또한 좋은 기술자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기술자들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돈에 인격을 팔지 않고 신용을 지키면서 정성을 다하여 새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필요한대로 천명 만명 보내어 주시옵소서!
- 때를 따라 좋은 일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일기를 주셔서, 새성전을 건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실로암
못가에서

* 이 글은 지난해 5월 25일 강남구 논현동 우리 교회
새성전건축 기공예배시 행한 김창인 목사의 설교
중 발제한 것이다. (편집자)

월간 **충현**

'79 **2** 월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